

# 국힘 4강 티켓 누가 잡나…내일부터 일주일간 1차 경선

오늘까지 후보 등록…리얼미터 지지율, 김문수·한동훈·홍준표 순  
마지막 한자리 관심…尹 탄핵 찬반 구도따라 안철수·나경원 주목

국민의힘이 14일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시작하면서 후보간 경쟁도 본격화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4~15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은 뒤 16일 서류 심사를 통해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하고,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국민의힘 지지층 및 무당층 대상)를 통해 오는 22일 4명의 2차 경선 진출자를 뽑는다.

현재까지 출마를 공식화한 국민의힘 주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나경원·윤상현 의원, 이철우 경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양향자 전 의원 등이다.

최근 여론조사 경향을 종합하면 김 전 장관과 한 전 대표, 홍 전 시장이 4강행 티켓을 쥔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 의뢰, 9~11일 ARS 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 포인트, 응답률 4.7%)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내 김 전 장관 지지율은 32.7%, 한 전 대표 16.1%, 홍 전 시장 13.7% 순이었다.

4강전에 오를 나머지 한 명이 누구 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지지 표심이 '찬탄파' (탄핵소추 찬성파) 안철수 의원에게 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앞서 오 전 시장과 유 전 의원이 국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찬성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난 11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나 의원에게 윤 전 대통령 파면에 실망한 당심 지지자가 쏠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나 의원은 이번 탄핵 국면에서 '탄핵 기각·각하'를 주장해왔다.

2차 경선으로 가면 4명 가운데 반탄파(탄핵소

추 반대파)와 찬탄파 구도가 어떻게 짜일지에 따라 후보 간 유불리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과 홍 전 시장, 한 전 대표, 안 의원이 4강전을 치른다면 반탄파(김문수·홍준표)와 찬탄파(한동훈·안철수)는 2대2 구도가 된다. 이럴 경우 각 지지층의 표심이 후보별로 분산돼 최종 경선에 진출할 2인이 누가될지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 의원 대신 나 의원이 4명 안에 든다면 한 전 대표를 제외한 3명이 찬탄파로 묶인다. 이 경우 한 전 대표가 반탄파의 지지를 몰아받게 되면서 최종 경선 진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후보들은 캠프 인선을 본격화하며 세물이에 나서고 있다.

홍 전 시장은 보수 진영 최대 외곽조직으로 알려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새미준) 이영수 회장을 캠프에 영입했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메시지 총괄본부장으로 영입했다.

1차 여론조사 기간이 다가오자 후보들 발걸음도 빨라지는 모습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경북 일대를 방문하며 보수층 표심 공략에 나섰다. 홍 전 시장은 국회에서 당 지도부를 면담한 데 이어 오후 대선 출마 선언식을 했다.

한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 집중하며 '메시지 고공전'에 주력했다. 안 의원은 부산을 방문하고, 나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 유 시장은 안보·인구정책을 발표하고 양 전 의원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을 방문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한덕수 “美와 협상…마지막 소명 다할것” 대선 출마 언급 없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국무위원들과 함께 제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할것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간 통상 협상 문제와 관련해 “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다.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 나가는 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

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라며 “미국발 글로벌 통상전쟁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무역 대국’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에게 “오직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미국 측이 제기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및 협력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해주길 바란다”면서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심분 활용하겠

다”고 역설했다.

한 대행의 이날 ‘마지막 소명’ 발언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 선거 출마 요구에 대해 에둘러 선을 그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한편, 경찰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부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

## “전남지사 3선 도전, 도민 의견 듣겠다”

김영록 지사 기자간담회…“내란 종식 위해 대선 불출마”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3선 연임 도전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4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단 전남의 현안을 잘 추진하고 새 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당장 3선 도전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도민들의 요구와 정치적 상황 등이 맞물리면 3선 도전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이어 “새 정부에서의 행보와 관련해서는 역할이 주어지는 것을 봐야겠지만 현 단계에서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발언은 차기 정부에서 자신이 맡게 될 위치에 따라 3선 연임 도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전남도지사를 역



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김영록 지사는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 최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지사는 이날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선 “민주적 정권 교체와 내란 세력 종식에 부응하라는 시대 정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과감하게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국힘 “주 4.5일 근무제 도입·52시간제 폐지”

비대위, 대선 공약 추진

국민의힘은 14일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주 52시간 근로 규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주 5일제와 주 52시간 근로 규제는 시대의 흐름과 산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제도로서 유연한 근로 문화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오히려 생산성과 자율성 모두를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주 4.5일제와 관련해 월요일~목요일 하루 8시간 기본 근무 시간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한 뒤 퇴근하

는 방식을 시범 도입한 울산 중구청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총 근무 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도 변동이 없다”며 “기존 주 5일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시간 배분을 통해 주 4.5일제의 실질적인 위라벨 효과를 가져오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주 4일제 및 4.5일제는 근로 시간 자체를 줄이지만 받는 급여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서 오히려 노동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은 유지하되 유연근로제를 통해 실질적인 주 4.5일제 도입의 이점을 늘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대선 공약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업종과 직무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를 방해하는 주 52시간 근로 규제 폐지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산업현장에서는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반대로 일이 적을 때 충분히 쉴 수 있는 유연한 근무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비롯해 주 52시간 규제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산업 분야를 면밀히 분석해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유연화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대선 기간에만 관심을 보이는 데 그치지 말고 국민과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해 신속히 국회에서 입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예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